

BELÓVED[®]
GALLERY | STUD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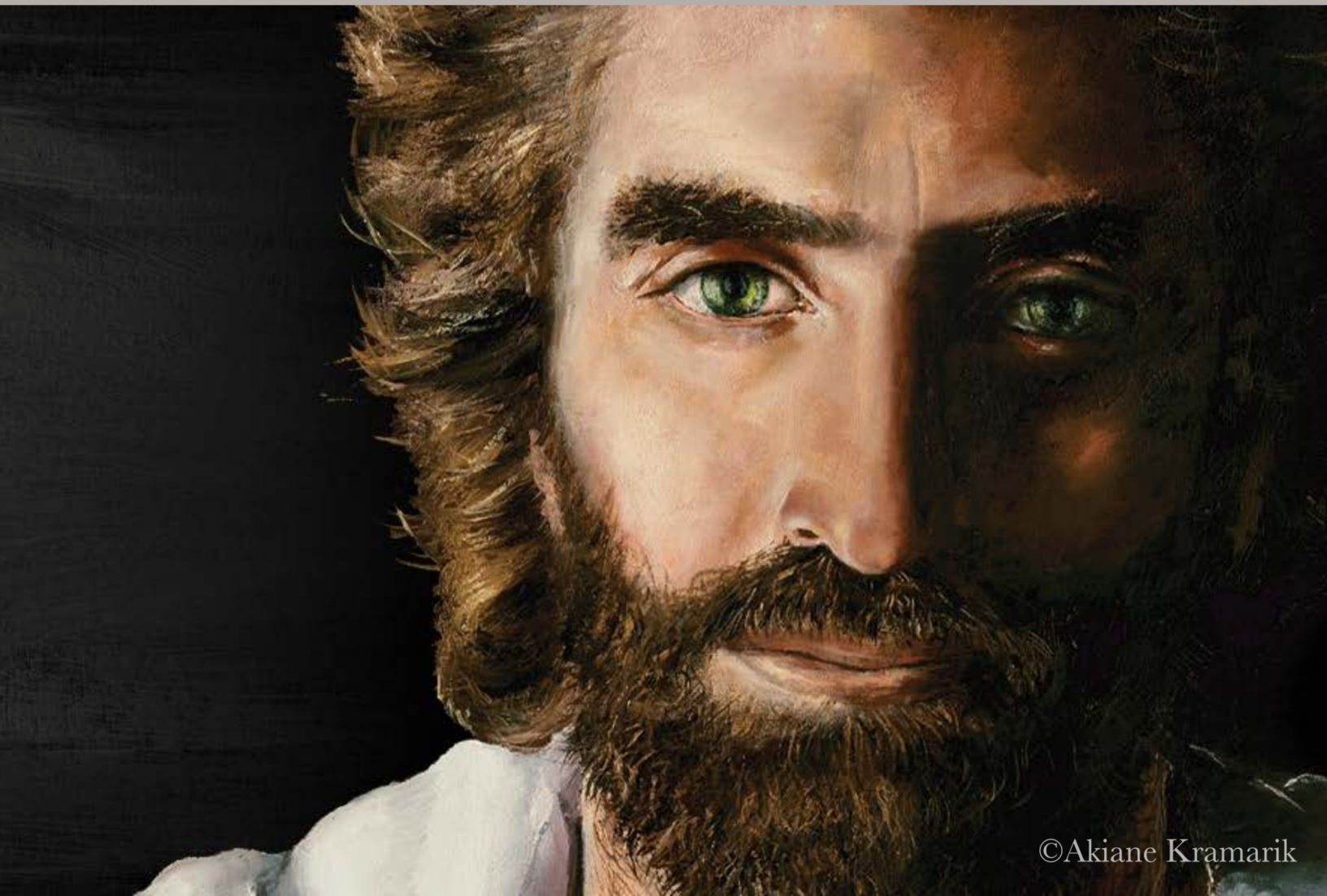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그분을 그린 소녀

대한민국 서울 사랑의교회

주최: 비러브드 갤러리 & 아키아나 갤러리



©Akiane Kramarik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

주최: 비러브드 갤러리

장소

서울 사랑의교회

일정

특별 관람: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참가자

2025년 10월 27일 ~ 11월 1일

일반 관람:

2025년 11월 2일 ~ 12월 7일

관람 시간

일반 관람: 2025년 11월 2일 ~ 12월 7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6시

관람료

무료 (온라인 또는 현장 등록 필수)

언어

영어, 한국어

BELOVEDGALLERY.ORG/SEOUL

전시 개요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 展은 세계적인 거장 아키아나 크래매릭의 기적 같은 삶과 그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담아낸 몰입형 전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비러브드 갤러리의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화가 아키아나의 예술과 그녀가 전하는 ‘변함없는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관람객은 아키아나의 근황과 최근의 작품 세계를 체험한 후, 영재 화가의 놀라운 성장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에 흔치 않은 미디어 출연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가 하나님의 환상에 의해 가족 전체의 믿음을 바꿔놓는 놀라운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본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아키아나의 작품을 디지털로 구현해 그녀가 본 하늘의 환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몰입형 미디어 체험입니다. 이어서 예술의 성소로 불리는 공간에는 <평강의 왕>, <예수: 잃어버린 세월>, <꿈>, <예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등 예수님을 그린 걸작과 더불어 아키아나가 어린 시절에 쓴 시들이 소개됩니다.

끝으로 관람객은 4층 높이의 대형 LED 화면에 흐르는 아키아나의 작품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초대됩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작가 소개: 아키아나 크래매릭

아키아나 크래매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 화가이자 시인입니다. 어린 시절 영재로 불리며 사실주의 회화와 시 분야에서 동시에 천재성을 발휘한 최연소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덟 살에 그린 <평강의 왕>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로 자리 잡으며, 무명의 소녀를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키아나의 걸작들은 전 세계 미술관, 박물관, 대사관, 개인 컬렉션 등에 전시되며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꿈과 여행,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은 영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회화, 조각, 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녀는 붓질 하나하나에 가족의 뒷받침과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했다고 고백합니다.

아키아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akian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러브드 갤러리 소개

비러브드 갤러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키아나의 예술과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분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 오시길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1)

믿음의 토대 — 신앙 고백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16)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참되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러브드 갤러리는 자회사 비러브드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성경공부 앱 <가말리엘>의 출시와 아키아나 크래매릭의 삶을 다룬 장편 영화 제작이 포함됩니다.

아키아나의 여정: 주요 타임라인

- **시작 — 0세~7세**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네 살 무렵부터 천국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다.

- **사명 그리고 평강의 왕 — 8세**

빛나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본 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끌려 40시간 만에 <평강의 왕>을 완성하다.

- **도난, 상실과 회복 — 8~9세**

<평강의 왕>이 도난당하다. 그러나 기적 같은 사건들을 거쳐 아홉 번째 생일에 되찾다.

- **명성과 시련 — 10세~15세**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한편 어려움과 비판도 겪다. 수천 명이 자택 갤러리를 방문하다.

- **닿을 수 없는 얼굴 — 12세~16세**

<평강의 왕>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이 되었으나 개인 소장으로 남아 공개되지 못하다.

- **추구와 협상 — 16세~26세**

비러브드 갤러리가 아키아나의 작품을 발견하고 <평강의 왕>을 소장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다.

- **꿈의 성취 — 28세**

27세에 드디어 <평강의 왕>과 재회하고, 비러브드 갤러리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 공유하게 되다.

- **꿈의 확장 — 31세**

비러브드 갤러리가 현대의 기적으로 불리는 <평강의 왕>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최초의 국제 전시로 선보인다.

주요 전시작



<평강의 왕> (2003)



<바람 속 열여섯 생명> (2016)



<불멸> (2011)



<자화상> (2020)



<신성한 나침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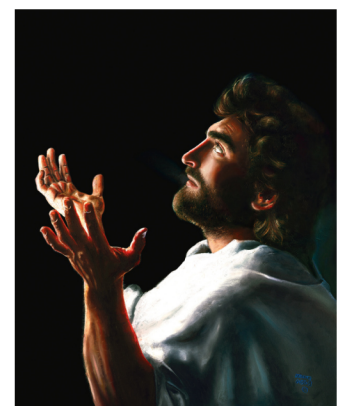
<예수> (2017)



<빛> (2018)



<게임> (2021)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2004)

작가의 말

아키아나의 명언 모음:

- “제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사랑으로 향하고 제 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아키아나, 10세)
-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키아나, 10세)
- “이 그림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아니, 제 삶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삶,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삶을요.” (아키아나, 성인)
- “사람들이 단순히 영감만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역경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길 바랐어요.” (아키아나, 성인)
- “이 그림은 단순한 붓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길 정말 원하셨다고 믿어요.” (아키아나, 성인)
- “제 꿈은 제 예술이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키아나, 성인)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은 무신론자 어머니와 불가지론자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여덟 살 소녀가 그린 것입니다.
- <평강의 왕>은 도난당해 수년간 숨겨졌다가 기적적으로 되찾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 비러브드 갤러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이들이 예술을 통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존재합니다.
- 아키아나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 수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는 현대의 기적입니다.

보도 문의

Donna Wilcox | 도나 윌콕스

비러브드 갤러리 대표 | 비러브드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이메일: dwilcox@belovedgallery.org | 전화: +1 (512) 914-8419

BELOVEDGALLERY.ORG



Prince Of Peace

AKIANE KRAMARIK | AGE 8
MEDIUM OIL ON CANVAS

The night peace, a young image of Jesus appears to me in my dreams and visions. Only when I'm alone - usually after looking out at the stars at night - do I know it is the light of Jesus that is the light of peace.

©Akiane Kramarik

B

